

 **신아일보** (<http://www.shinailbo.co.kr>)

[HOME](#) > [로컬+](#) (/news/articleListhtml?sc_section_code=S1N17) > [대구·경북](#) (/news/articleListhtml?sc_sub_section_code=S2N91)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청년농 농지지원사업 소통간담회 개최

김진욱 기자 | 승인 2024.01.30 17:02



(사진=농어촌공사 성주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성주지사는 30일 청년농 농지지원사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성주군 내 읍면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인 성주군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청년농 대상 농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.

또한 청년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제언 등을 수렴하고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성주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청년농가에 74.2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,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이돈문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.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성주지사는 2월13일부터 26일까지 ‘2024년 선임대-후매도사업’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.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[신아일보] 성주/김진욱 기자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진욱 기자 기자

 인쇄